

[사회]

■ 전남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타르 불똥'

"이러다가 자릿세도 못 내겠네요. 타르 피해가 없다고 아무리 언론에서 떠들어놔야 서울 시민들이 사기질 않으니 무슨 소용입니까."

“피해없는 청정 수산물” 외쳐봐도...

지난달 30일 오후 3시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 설 명절을 맞아 전남지역 농수산물을 서울 시민들에게 직접 제공하는 '녹색의 땅 전남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가 열리고 있었다.

완도 김·미역·전복 등 매출 뚝 떨어져 "자릿세도 못낼라" 판매업자들 한숨만

난해엔 첫날에만 200만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올해는 오후 3시 넘도록 하나도 팔지 못했다"며 "완도 쪽엔 타르 덩어리가 오지 않았지만 서울 시민들의 인식 속에 '전남=타르' 공식이 박혀있는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년 전복과 김을 사다 먹는데 올해는 기름 유출 때문에 수산물 쪽은 눈길 이 가지 않는다"며 "언론에서는 문제 없다고 하는데 왜지 째째해서 손길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말라'고 이야기하더라"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선물용으로는 준비할 수가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실제 첫날 매출은 2억8천여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간 떨어졌지만, 수산물 분야 매출은 크게 감소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문을 연 '녹색의 땅 전남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행사장이 타르 공포로 인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남 태안 기름유출사고로 발생한 타르 덩어리가 전남 일부 지역에 피해를 끼치는데 그쳤지만, 그 파장은 전남 농수산물 전체의 위기로 타쳐온 것이다.

행사 첫날인 이날 명절 선물을 사기 위한 시민들로 북적거려야 할 행사장에는 개막 행사에 참여한 일부 정치인들만 보일 뿐 일반 시민들은 거의 없었다.

직거래 장터 행사의 매출은 2005년 10억2000만원, 2006년 12억7천만원, 2007년 13억1천만원 등 해를 거듭할수록 몰랐지만 올해 14억원의 목표 달성은 미지수다. 경기침체와 더불어 타르 피해라는 악재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완도군 완도읍 우진산업 김경두(39) 팀장은 "전복과 미역의 경우 지

년 전복과 김을 사다 먹는데 올해는 기름 유출 때문에 수산물 쪽은 눈길 이 가지 않는다"며 "언론에서는 문제 없다고 하는데 왜지 째째해서 손길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수현(64·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씨도 "고향이 신안이라 명절만 되면 지인들에게 김을 사서 보내 주는데 올해는 상대방이 먼저 '김은 보내지

전남도 관계자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홍보도 많이 했지만 타르로 인한 악영향이 생각보다 크다"고 말했다. /광림상기자 kps@kwangju.co.kr

금값 뛰자 밀수 기승

금값 상승으로 금·보석류의 밀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해 밀수·불법외환거래사범 단속 실적 6천 696건, 4조4천806억원으로 건수는 12% 증가했지만 금액은 28% 감소했다고 지난해 31일 밝혔다.

지난해 금·보석류 밀수 중 가장주부·대학생의 금과 조지밀수 사건을 제외한 금액은 252억6천만원으로 전년 7.7배에 달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수입 쥐포·오징어 대장군 '우글우글'

수입 쥐포와 오징어, 한치 등 건포류 중 19.4%에서 식중독균 및 대장균이 검출돼 식품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 소재 백화점·대형마트·재래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수입건포류 8품목 36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아울러 수입건포류는 식품위생법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지만 재래시장에서 비포장상태로 판매하는 12개 제품은 모두 이를 지키지 않았고, 2개 제품(은어, 황태)에서는 벌레가 확인됐다.

/연합뉴스

Weather forecast for February 1st (2008) including temperature ranges for various regions and a 7-day outlook table.

설 연휴 서울~광주 7시간 50분

올해 설 연휴기간에는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오는 귀성길이 7시간 50분, 반대로 서울로 올라가는 귀경길은 7시간 10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는 지난달 31일 설 연휴기간 동안 주요 구간별 최대 예상 소요시간을 발표하고 승용차를 기준으로 서울→광주, 서서울→목포를 내려오는 귀성길은 각각 7시간 50분 정도 소요된다고 전망했다.

또 귀경길의 경우 광주→서울은 7시간 10분, 목포→서서울은 7시간 40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호남지역본부는 설 당일인 7일 호남지역 고속도로의 교통량이 47만3천

대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귀성길은 5일 오후부터 6일 오전 사이가 절정에 달해 관산IC~동광주 요금소 구간 등이 지·정체되고, 귀경길은 7일과 8일 오후 장평IC~동광주 요금소 구간 등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호남지역본부는 5일부터 일주일 간을 '특별교통소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특별근무체제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효율적인 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자동응답전화(ARS·1588-2505) 안내를 버트스에서 음성안내로 변경해 평균 통화시간을 단축하고, 도로공사 홈페이지 서버 용량도 늘려 이용객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축구하다 다친 현직판사 "공무상 재해 인정" 소송

서울고등법원 관내 12개 법원 간 축구대회에서 경기 도중 다친 현직판사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는 최모 판사는 작년 6월 토요일 수원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된 '제1회 서울고등법원장배 축구대회'에서 서울

중앙지법의 대표 선수로 출전했다가 무릎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그는 이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을 했으나, "부상과 공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절당했다.

이에 대해 최 판사는 "축구대회가 단순한 법원 동호회 차원이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장배 축구대회'로서 실질적으로 사회법원장배 축구대회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백혈병 괴담' 반도체 13社 건강실태 조사

국내 굴지의 반도체 업체의 공정 근로자가 잇따라 백혈병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광주지역의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LG이노텍 등 국내 13개 반도체 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 건강실태조사'를 벌인다.

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공단과 공동으로 2월 한달간 실태조사를 통해 ▲백혈병 발생현황 ▲주요 화학물질 취급현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현황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 측정 실태 등을 점검한다. 정부가 반도체 공장 전체에 대해서 일제 작업환경 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는 실태조사후 반도체 업체

의 화학물질 사용현황을 분석한 뒤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초조사 성격인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는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실태조사는 지난해 모 반도체 회사 한 공장의 같은 라인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2명이 잇따라 백혈병으로 숨진 게 발단이 됐다.

업무 연관성을 제기하는 유가족들과 노동·시민단체가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까지 구성해 회사측 책임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반도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벤젠과 방사선 등 화학물질 때문에 백혈병에 걸렸다"며 "최근 7년 동안 이 공장에서만 최소 6명의 백혈병 환자가 발생하는 등 이 회사에서 일했던 11명의 근로자가 백혈병에 걸린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우연의 일치일 뿐 작업환경과 백혈병 발생과의 관련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노동당국의 최종 역학 조사는 올 연말이나 돼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몸져 누운 농민에 영농 도우미 지원

정부가 사고나 병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농민 1만3천명에게 '도우미'를 지원, 노동력 손실을 메워준다. 농림부는 올해 예산 47억원을 들여 농업인 1만3천명을 대상으로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지난해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5만㎡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사고(2주 이상 상해진단)나 질병(2주 이상 입원진단)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경우 정부가 도우미를 파견해 농작업을 대신하게 하는 농업인 위기 관리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고 뿐 아니라 병으로 인한 노동력 공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E-Supporter 어학원 advertisement featuring a table of course fees and contact information.

ROBEM TOY STORE advertisement for a 'BIG SALE' with various toy products and prices.